

## 동성애자 내담자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여성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박 정 은                      남 궁 미                      정 서 진<sup>†</sup>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서강대학교

육군본부

본 연구는 동성애자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회기 이상 기간 상담을 받은 동성애자 7명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자료를 Van Kaam의 현상학적 질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동성애자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를 인식함,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 드러내기, 내담자로서 경험한 상담과정 및 결과, 동성애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전문성과 태도를 예측하고 확인하기의 4개 범주와 11개 주제, 25개 부주제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성이 자신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며, 상담 장면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상담자에게 ‘커밍아웃’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상담을 고려할 때, 상담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성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자신의 고유한 경험을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성애자와의 상담 장면에서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상담자 태도, 요인, 전문성 등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소수자, 동성애자, 상담경험, 현상학적 연구

---

<sup>†</sup> 교신저자 : 정서진, 육군본부, (10804)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어삼로 6번길 3357부대  
Tel : 031-861-2603, E-mail : sjmilk@gmail.com

1973년 동성애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 삭제된 것을 시작으로 주요 유럽 국가 및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다수 국가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등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처럼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에서 벗어나 성소수자를 하나의 인구집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성소수자는 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 출생 시 지정 받은 성별과 일치하는 사람)이자 이성애자인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넓게 이르는 용어로 동성애자 뿐 아니라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등을 포함한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성애자는 정서적으로(emotional), 성적으로(sexual), 애정을 느끼는(romantic)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나뉘며, 트랜스젠더와 젠더퀴어는 시스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국내 성소수자 인구 규모는 대략 100만 명에서 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윤가현, 1997; 강병철, 2011), 성소수자 친화적이지 않은 사회의 분위기로 인해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을 가능성(Dean et al., 2000)을 고려하면 실제 성소수자의 인구는 보고된 규모보다 더 클 수 있다. 성소수자의 인구 규모는 국내 인구의 2%~10%를 차지하지만, 국내 인구의 0.3%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여성(국가통계포털, 2019)이나 14%를 구성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국가통계포털, 2019)에 비하면 성소

수자의 인권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논의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강병철, 2011). 또한,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국내 사회적 분위기도 호의적이지 않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2016)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수용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성소수자에게 적용되는 법제화나 사회적 제도 역시 유럽 및 북미권 국가들과 비교하면 미미한 편이다. 실제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3.4%의 응답자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기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41.5%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Meyer(2013)는 이런 사회적 환경이 편견과 차별을 받는 집단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소수자 스트레스 이론(Minority Stress Model)을 제안했다. 소수자 스트레스는 사회적 소수이자, 차별이나 편견을 받는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다수 집단에 비해 추가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Meyer, 2013). 동성애자는 주류를 차지하는 이성애자와는 다른 성적 지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사회적 낙인을 받는 집단에 속하며 그로 인해 이성애자는 겪지 않는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Meyer, 2013). 예를 들어, 동성애자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커밍아웃했을 때 수용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성적 지향을 알리지 못하고 이성애자처럼 행동할 때 느끼는 불편감(신승배, 2013), 결혼을 포함한 법적 제도가 보장되지 않아서 가족을 구성할 수 없는 어려움(류성진, 2013) 등이 대표적인 소수자 스트레스에 해당한다. 이런 편견과 차별을 받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동성애자는 이성애

자보다 정신건강의 문제를 더 높은 비율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자는 이성애자에 비해 자살 생각, 불안 장애를 겪는 비율이 높고(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Plöderl, & Tremblay, 2015), 우울수준 및 소외감도 이성애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공성욱 외, 2002). 최근 국내 성소수자의 건강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도 동성애자, 양성애자의 우울 증상과 자살 생각 및 시도의 유병률이 이성애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이호림, 이혜민, 박주영, 최보경, 김승섭, 2017).

이와 같은 이유로 동성애자는 이성애자에 비해 상담을 비롯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영, 공춘옥, 정윤경, 2018; Burckell, & Goldfried, 2006).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중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의 비율이 25%에서 65%로 보고되었는데(Bieschke, Preez, & DeBord, 2007), 이처럼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는 상담서비스에 접근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성적지향에 대해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지만(박수영 외, 2018), 국내에서 그런 상담자나 상담기관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했다(공춘옥, 정윤경, 박수영, 2018).

한편, 상담자들도 동성애자 내담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때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상담자의 특성에 따라서 동성애에 대해서 지닌 관점이나 태도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상담자에게는 동성애자에게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

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Whitman, & Bidell, 2014). 특히, 기독교를 종교로 둔 상담자나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상담자는 다른 상담자에 비해 동성애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영석, 이정림, 강재희, 차주환, 2007). 또한, 상담자 역시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의 한 명으로서 이성애를 정상적인 규범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Russell, & Bohan, 2007), 상담자는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Shelton, & Delgado-Romero, 2011). 실제로 국내 선행연구에서 상담자는 동성애자에 대해 일반 대중과 유사한 수준의 차별적 태도를 가지며 특별히 더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서영석 외, 2007).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우사라, 유성경(2017)의 연구에서도 국내 상담자 집단의 동성애 혐오적 태도는 국내 대학생 집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국내 상담자들이 동성애자에 대해 지닌 태도는 상담자의 임상적 판단 및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반응하는 방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박정은, 2013; 우사라, 유성경, 2017), 이는 상담자들이 동성애자 내담자에게 효과적이지 않은 상담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상담자는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와 상담을 할 때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우사라, 2015). 이성애자인 상담자에게 동성애자 내담자는 자신과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내담자로 인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상담자는 동성애자의 경험을 이해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Davison, 2005). 특히, 동성애자 내담자 상담에 관한 별도의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자가 동

성애자 내담자 상담에 대해 유능감을 느끼기는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상담자들은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매우 적거나 없으면 동성애자 내담자를 만날 때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Murphy, Rawlings, & Howe, 2002). 한편, 성소수자를 상담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의 경험을 탐색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상담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자신이 제공한 상담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희선, 2017). 기독교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국내 연구에서도 상담자들은 유사한 어려움을 보고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이민정, 2015). 실제로, 동성애자 상담을 주제로 한 교육 경험은 상담자의 동성애자 상담에 대한 유능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Bidell, 2013; Israel & Hackett, 2004), 동성애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부재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우사라, 유성경, 2017), 동성애자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국내 상담자의 유능감이나 준비수준은 높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담자의 동성애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역량 부족 및 차별적인 태도는 동성애자의 불만족스러운 상담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 내담자들은 상담에서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을 호소한다(Burckell, & Goldfried, 2006; Rutter, Estrada, Ferguson, & Diggs, 2008). 미국정신의학회와 미국심리학회 모두가 전환치료를 반대하

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이후로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환치료 등의 명시적인 차별은 감소했지만(공춘옥 외, 2018),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미묘한 형태의 편견을 경험하거나 부적절한 개입을 받은 경험을 호소하고 있다(Shelton, & Delgado-Romero,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담자가 동성애자 내담자에게 지지적인 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윤리적인 지침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성애를 정신 질환으로 인식하거나(Kelly, 2015), 이성애 성적 지향만을 인정하거나(Shelton, & Delgado-Romero, 2011), 성적 지향이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아닌데도 상담 내에서 다루기(Shelton, & Delgado-Romero, 2011) 등의 상담자의 차별적 태도가 다수 보고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성적 지향에 대한 대화나 주제를 회피하고 동성애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를 불편해하는 것(Shelton, & Delgado-Romero, 2011), 성적 지향의 발달 과정이나 커밍아웃 과정 등 동성애와 관련된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Spengler, Miller, & Spengler, 2016), 내담자가 경험하는 차별이나 편견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Spengler et al., 2016), 그리고 내담자가 당연히 비성소수자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Shelton, & Delgado-Romero, 2011; Spengler et al., 2016) 등의 미묘한 형태의 차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미묘한 차별은 상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채로 일어날 수 있는데(Shelton, & Delgado, 2011), 예를 들면 상담자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과는 별개로 내면화된 신념, 문화, 가치관, 교육 부족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상담자는 동성애자 내담자에게 차별적인 언어나 행동을 할 수 있다. 성소수자 상담경험에 관한 연구(양희선, 2017)

에서 상담자들은 성소수자 내담자를 비성소수자 내담자와 다르지 않게 보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내담자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내담자의 성적 이슈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도 보고했다(양희선, 2017). 이는 상담자가 동성애자 내담자에 대해서 적절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동성애자 내담자와의 상담 기술 수준은 낮았다는 우사라(2015)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상담자 관점에서 동성애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다수 이루어졌던 반면, 동성애자 상담 실제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박수영 외, 2018). 상담자의 성소수자 상담경험(양희선, 2017), 동성애자에 대한 상담자의 부정적인 태도 및 반응(우사라, 유성경, 2017),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내담자의 상담 결정요인(박수영 외, 2018)등 성소수자 상담과 관련한 연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인 내담자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공춘옥 외(2018)의 성소수자 상담경험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공춘옥 외(2018)가 진행한 성소수자의 상담경험에 대한 연구는 내담자의 관점에서 성소수자의 상담경험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상담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과 만족스러운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모집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일반의 상담경험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성소수자 집단 내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다양한 하위집단이 존재하며 각 하위집단의 구성원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정체성 발달 과정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공춘옥 외, 2018), 동성애자의 상담경험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인 국내 사회적 분위기와 상담자들의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고려하면 동성애자 내담자가 상담 내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성애자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상담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현상학은 인간이 체험하는 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밝혀내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Cresswell & Poth, 2016), 주어지는 자료를 통해 심층적인 의미를 찾아낸다는 점에서 상담 영역과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박승민, 2012), 실제로 상담 연구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박승민, 2012; 이정윤, 서영석, 2017).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동성애자 내담자들이 상담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그 상담과정은 어떠한지, 상담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동성애자의 상담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상담자가 동성애자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상담자들이 동성애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역량을 키우고 적절하고 윤리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김태호, 2009)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다음의 연구 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동성애자의 상담경험은 어떠한가?’

## 방 법

본 연구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론 중 Van Kaam(김분한 외, 1999)의 방법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다. 현상학은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기술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귀납적이고 기술적(descriptive)인 연구 방법이다(김분한 외, 1999).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 즉 상담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탐색하기 위해서 현상학적인 관점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성애자 고유의 상담경험을 탐색하는 연구 목적에 맞게 참여자 스스로 동성애자로 정체화하고, 2회 이상 상담을 받았으며, 상담자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린 사람을 기준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질적 연구는 방법론에 따라 권장되는 표본의 크기가 다르므로(Creswell & Poth, 2016), 현상학적 연구에 적합한 표본 크기에 대한 선행 연구를 기준으로 참여자의 수를 결정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의 권장 표본 크기는 학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Dukes(1984)는 최소 3명, 최대 10명이 적합하다고 제안했고, Polkinghorn(1989)는 최소 5명, 최대 25명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 수는 최소 5명 이상, 최대 10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한 10명 중 참여자 선별 기준에 부합하는 9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 참여자 9명 중 병원

장면에서 의사와의 상담경험을 보고한 1명과 인터뷰 중 상담의 회기 수를 1회로 수정한 1명을 제외하고 총 7명의 자료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동성애자 커뮤니티와 각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단체 온라인 게시판에 참여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안내문에 연구자의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여 신청자가 참여 의사가 있을 경우 연구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신청자에게는 연구자가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자가 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연구 참여 의사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후, 신청자가 인터뷰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되고 인터뷰 진행이 확정되면, 연구에 대한 소개 및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연구 참여 신청서, 녹음 동의서 등을 전달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히고 본 연구에 참여하는 만큼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E-mail, 연락처, 나이 등 연구 진행 및 자료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또한 인터뷰 전후로도 참여자와 주고받는 모든 연락은 익명 메신저 방을 활용하였고, 인터뷰를 진행한 후 연구 결과를 안내받고 싶어 하는 참여자에 한해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 전반의 내용과 절차에 모두 동의하는 참여자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연구 참여비가 제공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표 1 참조), 연령은 20대가 3명, 30대가 4명이었으며,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다. 연구 참여자가 상담을 받은 기관은 사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번호	나이	성별	상담경험	상담 수(회)	상담기관
1	30대	여	2번	1번(30회) 2번(52회)	단체 대학
2	30대	여	1번	1번(85회)	사설
3	20대	여	2번	1번(35회) 2번(30회)	사설
4	30대	여	3번	1번(25회) 2번(10회) 3번(20회)	대학 단체 사설
5	20대	여	1번	1번(40회)	사설
6	30대	여	1번	1번(20회)	대학
7	20대	여	3번	1번(12회) 2번(16회) 3번(25회)	사설

설 상담센터, 대학 상담센터, 성소수자 유관 단체 상담소 등으로 다양하였다. 몇몇 참여자는 2번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었으며, 상담 회기는 단 회 상담부터 최대 85회 정도까지 참여자 간 차이가 있었다.

####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는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참여자와 미리 시간과 장소를 협의하여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인터뷰는 50분에서 6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윤리 규정에 따라 다시 한 번 연구의 목적과 비밀 보장, 녹음 동의, 중도 참여 포기 가능,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참여자의 이득과 불편함에 대해 연구안내문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서

를 받은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인터뷰 동안 사용할 호칭을 묻고, 그 호칭을 사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내담자로서의 상담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라는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동성애자로서의 상담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상담자와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등의 후속 질문을 수행하였다. 후속 질문의 구성 및 흐름은 연구자 간 회의를 통해 사전에 정하였으나,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보다 더 풍부한 설명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해진 순서 없이 융통성 있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 맞나요?” 등의 질문을 추가로 해서 참여자가 다시 한 번 자신의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명확하게 전

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휴대용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하였고, 인터뷰가 끝난 후에는 해당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자가 녹음된 자료를 축어록으로 작성하였다. 전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자가 축어록을 해당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들과 공유하였다.

## 연구자

본 연구의 연구자는 총 3명으로, 모두 상담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3명 모두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거나, 질적 연구 방법론 스터디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미치지 않도록 연구자 각자가 연구 주제와 관련해 지니고 있는 생각, 경험, 예상하는 결과 등을 논의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확인된 동성애자의 상담경험에 대한 연구자들의 선입견 및 편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자의 지식수준이나 태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둘째, 참여자는 상담에서 차별받은 경험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전사 후 자료 분석, 주제 도출 과정에서도 연구자들의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자료를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선정한 Van Kaam의 현상학 연구 방법은 개별 참여자의 특성보

다는 전체 참여자가 경험한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고, 참여자들의 언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Van Kaam의 방법은 각 주제, 부주제에 해당하는 의미있는 진술문들의 빈도수를 통해 주제별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다는 양적인 특성도 지니고 있다.

연구자들은 Van Kaam의 6단계 분석 방법(이남인, 2014)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축어록을 작성하여 여러 번 읽으며 본 연구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둘째, 원자료(raw data)에서 추출한 의미 있는 진술문을 반복하여 읽으며, 각 진술문을 공통적인 속성으로 묶는 일차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범주화 작업은 연구자 간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셋째, 일차 범주화를 끝낸 진술문들을 토대로 이들의 공통적인 속성이 잘 드러나도록 부주제(sub theme)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부주제들을 모아 주제(theme)로 묶었으며, 주제들의 속성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며 범주화(category)하였다. 그리고 최종 도출된 주제와 범주들이 참여자들의 진술문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범주화에 대해 통합적인 분석을 하며 현상에 관해 기술하였다.

## 결 과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자의 상담경험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상담 전반에 관한 동성애자의 경험을 범주화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인터뷰 참여자가 상담 과정에서 경험한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를 인식함,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 드러내기(커밍아웃)



표 2. 동성애자 상담 경험 범주화 결과

범주	주제	부주제 (n=의미 있는 진술의 빈도)	
동성애자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를 인식함	상담자의 차별과 편견 (23)	상담자의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4)	
		상담자의 동성애 정체성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 (5)	
		내담자 문제의 원인이 동성애 정체성이라고 가정함 (6)	
	상담자의 중립적 태도 (18)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성애중심주의적인 태도 (8)	
		동성애 정체성에 대해 다루지 않음 (6)	
		커밍아웃 전후의 태도 변화가 없음 (12)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 드러내기 (커밍아웃)	커밍아웃의 필요성 (32)	상담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의 연관성 (9)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4)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음 (19)	
	커밍아웃 과정 (32)	커밍아웃의 시기와 방식 고민 (10)	
		상담자의 반응에 대한 예상 (6)	
		커밍아웃 후 편안함, 해방감 경험 (16)	
내담자로서 경험한 상담과정 및 결과	긍정적 변화를 경험 (13)	자신에 대한 이해 및 통찰을 얻음 (8)	
	혼란스럽고 불편한 감정 경험 (14)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 경험 (5)	
		상담자의 개입으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느낌 (10)	
	상담자의 전문성 (21)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낌 (4)	
		상담자의 효과적 개입 (16)	
	동성애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전문성과 태도를 예측하고 확인하기	상담자의 지식 및 전문성에 대한 기대 (16)	상담자의 객관성 유지 (5)
동성애자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 (10)			
내담자의 성적 지향을 단정 짓지 않는 상담자의 언어 사용 (7)		동성애자의 삶, 문화, 경험에 대한 지식 (6)	
		성별에 대해 열려있는 호칭을 사용함 (7)	
동성애자에 대한 상담자의 전문성과 태도를 예측하고 확인하기		동성애자에 대한 상담자 및 상담기관의 태도 확인 (16)	성소수자 친화적 상담을 제공한다고 명시하는 상담기관, 상담자 선호 (10)
			동성애자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지닌 상담자를 지인에게 추천받음 (2)
	상담실 환경(4)	접수면접 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지지적인 상담자를 요청함 (4)	
		상담실 내 성소수자 친화적인 물건을 확인하고 안전감을 느낌 (4)	

웃), 내담자로서 경험한 상담과정 및 결과, 동성애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전문성과 태도를 예측하고 확인하기, 4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아래에서는 참여자의 상담경험과 그 의미를 범주, 주제 순으로 기술하였다.

#### 범주 1: 동성애자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를 인식함

동성애자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를 인식함 범주는 참여자가 상담 과정 전반을 통해 경험하게 된 상담자의 태도나 인식에 관한 내용이다. 이 범주는 ‘상담자의 차별과 편견’, ‘상담자의 중립적 태도’ 두 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 상담자의 차별과 편견

참여자는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자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부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의 상담수는 상담자가 이성애만을 규범으로 보고 동성애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참여자는 또한 상담자가 자신의 성적지향성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느꼈는데, 참여자들은 이러한 상담자의 시도를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위협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사회적으로 이성애자의 성적 지향성의 원인을 밝히거나 연구하려는 시도는 미미하거나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성애자의 성적 지향성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상담자의 태도는 이성애를 제외한 다른 성적 지향성은 자연스럽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참여자에게 인식되

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누구랑 이렇게 사귀다가 누구랑 이렇게 됐는데 그 관계에서 받은 피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던 상태였는데, 오히려 동성애자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불쾌했던 질문들 같은 경우 생각나는 거는, 어.. 의도가 보이는 게 자꾸 이전에 뭐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어릴 때 부모님과의 기억은 어땠는지 하면서 제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지라든가 (참여자 4)”라고 응답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자신이 커밍아웃을 한 이후에 “언제부터 여자를 좋아했는지, 남자는 사귀어봤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이처럼 자신이 호소하는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데도 상담자가 계속해서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참여자들은 불편감을 느끼고 상담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담자가 명시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겪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 할 때 상담자의 반응이 없거나 다른 주제로 화제를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여자 스스로 점차 상담에서 꺼낼 수 있는 이야기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제가 레즈(레즈비언)로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털어놔야지 좀 좋을 것 같은데 제 일상의 큰 부분이니까. 그걸 털어놓으면 되게 불편해하시니까 이야기도 못 꺼내겠고. 서로 불편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고” (참여자 5)

일부 참여자는 상담자가 성소수자와의 이전 상담경험이나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선입견을 가지거나, 일반화해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한 참여자는 “그 선생님한테 커밍아웃을 하고 그 선생님이 처음 한 말이 그거죠. 그러면 아 혹시 00씨 주위에 그러면 쿼어인데 나이 들어서 오래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이 있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참여자 1)”라고 보고했는데, 참여자는 그 질문을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담긴 메시지로 인식했다. 참여자는 상담자가 동성애자가 파트너와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으며, 특히 자신이 커밍아웃을 한 직후에 내담자인 자신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고 인식했다.

### 상담자의 중립적 태도

참여자들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상담자가 중립적 태도를 보였던 경험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상담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 참여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상담에서 나누는 내용을 제한하거나 자신을 숨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상담에 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다.

“애인이 여성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거나... 그랬을 때 다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그러나 참여자에 따라서 상담자의 중립적인 태도에 대해서 인식하는 방식이 달랐는데, 특히 몇몇 참여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반응을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상담자가 자신의 연애 관계에 대해 전혀 탐색하지 않거나, 상담자의 얼굴 표정이 바뀌는 등 명시적인 표현이나 언어적 표현이 없더라도 신체 언어나 상담자가 보여주는 행동이 참여자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때, 참여자는 상담자가 직업 윤리상 말을 하지 않지만 내면으로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이게 가장 어색, 사실 쿼어하면서 가장 어색해지는 지점은 그냥 막, 너무 막 아무렇지 않은 것. 왜냐면 사실 당연히 뭔가 뭐 사람이 새로운 점을 알게 되는데 당연히 궁금할 수 있고 뭐 아 그랬어, 놀랄 수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 너무 아무렇지 않아도 사실 어찌할 바 모르는 것에 대한 그 반응이기도 하잖아요.” (참여자 3)

### 범주 2: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 드러내기(커밍아웃)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 드러내기 범주는 참여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 자신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고, 상담자에게 알려야만 상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상담자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범주는 ‘커밍아웃의 필요성’과 ‘커밍아웃 과정’ 두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 커밍아웃의 필요성

참여자의 상당수는 무엇인가 꾸며내고 싶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커밍아웃을 할 결심을 했다. 참여자가 직접 성적 정체성을 밝히지 않으면 상담자는 참여자를 자연스럽게 이성애자로 전제하고 상담을 진행했고, 참여자는 그런 가정을 알아차릴 때 불편감을 경험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한 참여자는 자신이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상담자가 자연스럽게 남성이라고 가정하고 ‘남자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그래서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불편감을 경험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숨겨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상담 장면에서조차 있는 그대로의 자신임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상담을 더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상담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했다.

“있는 나를 마주하고 그 감정들을 느끼고 또 솔직하게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었을 때에 실제적인 상담의 효과라던가 개인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자 2)

한편, 상담 장면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슈가 연애 관계 등 자신의 성적 지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커밍아웃을 한 참여자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상담에서 자주 다루지는 주제 중 하나인 연애와 같은 타인과의 관계 이슈를 다룰 때, 상대방과 참여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참여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

“애기를 하다 보면 제 인생의 되게 큰 주제가 애인이기 때문에, 애인 얘기를 하려면 꼭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1)

### 커밍아웃 과정

참여자들은 상담 장면에서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 상담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불안감을 경험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큰 참여자일수록 상담 초기, 혹은 첫 회기에 커밍아웃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참여자들은 커밍아웃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더라도 정작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다.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동성애자에 대한 상담자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짐작하기 어려울 때, 참여자는 커밍아웃을 앞두고 긴장하고 상담자의 반응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다. 상담자가 자신보다 더 힘을 가진 권위자로 인식해서 커밍아웃을 다른 타인에 비해 더 어렵게 인식한 참여자도 있었다.

“처음에 이야기하긴 좀 무서웠어요. 좀 떨리고.. 친구들에게는 되게 쉽게 커밍아웃했거든요. 친구들 다 알아요. 근데 상담 선생님한테는 좀 떨렸던 거 같아요. 좀...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아 지금도 그래요. 눈물 날 것 같고. 뭐가. 뭐가. 잘못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수그러들지.” (참여자 5)

한편, 참여자들은 커밍아웃 후에는 ‘속이 시원하다’라거나, ‘이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해방감과 안도감을 느꼈다.

### 범주 3: 내담자로서 경험한 상담과정 및 결과

내담자로서 경험한 상담과정 및 결과 범주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 ‘혼란스럽고 불편한 감정 경험’, ‘상담자의 전문성’ 세 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상담자는 참여자의 변화를 돕기 위해 상담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입 및 질문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참여자는 다양한 정서적 경험, 개인 내적인 변화 및 관계형태의 변화 등을 경험하였다.

#### 긍정적 변화를 경험

‘긍정적 변화를 경험’ 주제는 참여자들이 상담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변화 전반을 의미한다. 긍정적 변화 경험은 상담 종결 후 내담자에게 일어난 변화뿐 아니라 상담 과정 내에서 내담자가 경험한 변화를 모두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고 삶에 대한 의욕 및 동기수준이 높아졌다.

“우울증도 걸리고, 우울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삶의 의욕도 잃고 큰 시험 같은 것도 있는데 증도에 포기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건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많이 해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또한 참여자들은 상담자와의 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밖에서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상담 밖 장면에서 타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상담 받았던 것이 좋은 기억으로 쌓이니까. 지금은 엄마랑 모든 이야기를 다 해요. 엄마랑 정말 정서적으로 친밀해진 거 있잖아요. 상담자랑 그런 관계를 겪고 나니까 엄마와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7)

#### 혼란스럽고 불편한 감정 경험

참여자들은 상담 회기 중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거나 상담자의 개입이 자신에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참여자 4는 “아, 너무 너무 힘들었겠구나 하고 이입을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그 생각을 떠올리기만 해도 힘든데 (상담자의 반응이) 그걸 배가시키는 느낌이었어요”라면서 상담자가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슈를 다뤘을 때 그로 인해 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상담을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도 되겠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상담자의 태도가 사무적”이었다며 상담자가 자신의 이야기에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만 하고 자신을 공감하는 것 같지 않아서 상담에 대해서 점점 동기를 잃게 된 참여자도 있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상담자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거나, 상담자가 자신의 이슈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때 상담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상담에서 불편한 감정을 경험했다.

#### 상담자의 전문성

참여자들은 자신의 심리 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담자의 전문성이 도움이 되는 경험을 했다.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질

문을 한 것이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고 인식했고, 상담자의 공감이나 타당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죽으려고 했을 때 하루 전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찾아보니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우울 주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원인이 있었구나.” (참여자 5)

또한 한 참여자는 상담자가 내담자인 자신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담자의 전문성의 하나로 인식하며, 그로 인해 상담자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참여자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분은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간격을 딱 맞추시는 것 같았어요. 깊이 이입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아예 멀리 떨어뜨리지도 않고 그 거리만큼 유지하시는 것 같았어요.” (참여자 7)

범주 4: 동성애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전문성과 태도를 예측하고 확인하기

동성애자에 대한 상담자의 전문성과 태도를 예측하고 확인하기 범주는 ‘상담자의 지식 및 전문성에 대한 기대’, ‘내담자의 성적 지향을 단정 짓지 않는 상담자의 언어사용’, ‘동성애자에 대한 상담자 및 상담기관의 태도 확인’, ‘상담실 환경’ 네 가지 주제를 포함한다. 참여

자들은 상담자가 동성애자 내담자를 만날 때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식이나 태도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으며, 이런 기대치가 충족이 되지 않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동성애자에 대해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을 상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여기게 되었다.

#### 상담자의 지식 및 전문성에 대한 기대

참여자는 상담자가 전문가로서 동성애자 내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지니고 있기를 기대했다. 따라서 상담자가 동성애자 정체성이나,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고유한 경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하거나, 또는 상담자가 동성애자의 삶이 어떠한지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깨닫게 됐을 때 실망감을 느끼고 아쉬움을 경험했다.

“제가 만약에 레즈비언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 공부를 좀 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서 설명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고. 그 설명을 하면서, 약간 언성이 높아지기 까지 했었거든요. 일단 이 사람이 제가 상담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구나라는게 느껴졌던 게 좀 별로였어요.” (참여자 4)

참여자들은 동성애자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뿐 아니라, 동성애자가 고유하게 경험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상담자가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참여자는 상담자가 전문가로서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고민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

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상담 회기 수가 늘어나는 동안 상담자의 동성애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은 전혀 늘지 않을 때 직업적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내담자인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받아들였다.

“그거(성소수자에 대해)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야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럼 내담자들이 가서 알려줘야 하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내담자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분류나 이런 게 되게 세분화되어있는데 트랜스젠더 호모섹슈얼 이런 식으로밖에 모르니까” (참여자 1)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퀴어들에게 거부감이 없고, 혐오 그런 게 없고, 게이 프렌들리 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담이라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 그 걸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 내담자의 성적 지향을 단정 짓지 않는 상담자의 언어 사용

‘내담자의 성적 지향을 단정 짓지 않는 상담자의 언어 사용’은 상담자가 내담자가 이성애자가 아닐 가능성, 즉 성소수자일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 참여자는 상담자가 성별에 대해서 열린 호칭, 즉 남자친구와 같은 특정 성별을 전제하는 언어가 아닌 참여자가 사용하는 호칭을 그대로 따라 사용해 줄 때 상담자에 대해 더 안전하다

는 느낌을 받고, 동성애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가 개방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담 선생님이) 이성이라고 선정하지 않고, 그냥 제가 썼던 언어를 쓰셨어요.” (참여자 3)

#### 동성애자에 대한 상담자 및 상담기관의 태도 확인

참여자 3는 상담자나 상담을 받을 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담자나 기관이 동성애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참여자들은 주변 지인을 통해 동성애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지닌 상담자를 추천받거나, ‘성소수자 친화적 상담’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상담 기관이나, 상담자를 검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상담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상담자에게 알리는 것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자에 대해 상담자가 수용적인 태도를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것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커밍아웃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찾아보다가 안전하게 커밍아웃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아봤거든요.” (참여자 5)

한 참여자는 “관련 기관에 계신 분들 여성주의적으로 좀 열려있는 기관에 있으신 분들을 좀 더 믿고 얘기할 수 있겠죠? (참여자 1)”라고 보고하면서 상담자 개인이 지닌 동성애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담자가 차별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성소수자 친화적이거나 여성주의 관점을 지닌 상담센터를 선택해서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된다고 했다.

### 상담실 환경

참여자들은 상담실에 성소수자 친화적인 책, 잡지, 성소수자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지는 무지개 등의 물건이 배치되어 있을 때 성소수자 친화적인 공간이라고 느끼고 안전감을 느꼈다.

“(상담실) 안에 내부 구성 자체가 엘지비티 문화에 관한 것이 붙어있고 뒤에는 플래그 걸려있고 그러니까 뭐랄까. 아 여기서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참여자 7)

## 논 의

본 연구는 동성애자의 상담경험에 대해 분석한 질적 연구로 동성애자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에는 7명의 동성애자가 참여하였고, 참여자들의 면접 자료를 Van Kaam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와 11개의 주제 묶음이 도출되었다. 아래에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상담 현장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자들은 상담 장면에서 자신의 동성애 성적 지향을 상담자에게 알리고 그 과정에서 상담자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걱정과 불안감을 경험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고 상담에 임하고 싶기

때문에 커밍아웃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지 않고 상담을 받을 때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상담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상담자의 가치관과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커밍아웃하기 전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성애자 내담자는 동성애자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에서의 과거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동성애 성적 지향을 밝히면 사회적 불이익이나 배척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김형지, 신정훈, 연구진, 김향숙, 2015; Mohr, & Fassinger, 2000), 커밍아웃을 할 때 사회적으로 수용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김은경, 권정혜, 2004; 김진이, 2017; 김형지 외, 2015; 윤아영, 2013).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동성애자 내담자가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공춘옥 외, 2018).

참여자는 커밍아웃을 해도 안전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담자가 동성애자나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상담자가 자신이 무엇을 말하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상담자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에게 비판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내담자가 커밍아웃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자신이 사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언급할 때, 상담자가 특정



성별을 단정 짓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안전하게 느낀 경험을 보고한 참여자가 있었다. 참여자는 상담자가 자신이 당연히 이성애자일 것이라고 단정 짓지 않고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열린 시각을 유지한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커밍아웃을 해도 최소한 부정적인 반응을 얻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반대로, 만약 상담자가 내담자가 사귀는 사람이 당연히 내담자의 성별과 다른 이성이라고 가정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호칭하는 이성애중심주의적인 언어표현을 쓴다면 상담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동성애자 내담자에게 안전한 느낌을 주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상담자가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동성애자 내담자는 자신을 드러내기 더욱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소수자 내담자들을 위한 상담 역량 가이드라인에서도 ‘아내’, ‘남자친구’ 등과 같은 특정 용어 대신 ‘파트너’와 같은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성소수자에게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비온뒤무지개재단, 2019). 이와 같이, 상담자가 성별을 특정 짓지 않는 언어, 예를 들면 내담자의 연인에 대해 만나는 사람이나 사귀는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동성애자 내담자가 안전하고 지지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이성애중심주의적인 사고나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진 않은지를 상담자 스스로 성찰해 본다면 동성애자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Burckell, & Goldfried, 2006). 또한, 참여자들은 상담기관이나 상담실 내부에 무지개

깃발이나 성소수자 문화와 관련한 스티커, 책, 포스터 등이 있는 것을 볼 때도 안전한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 기관이나 상담자의 홈페이지에 성소수자 협력자임을 드러내는 배너를 게시하거나, 상담 공간에 성소수자 지지적인 물건을 배치하는 것은 동성애자 내담자가 상담자 반응에 대해 느낄 불안감이나 걱정을 감소시키는 데 일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은 커밍아웃 전뿐만 아니라 커밍아웃 후에도 상담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 불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동성애에 대해 혐오적 반응이나 명시적인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상담자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지 않아 불안감을 느꼈다. 이와 같은 참여자의 보고는 상담자에게 상반된 반응처럼 인식되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 더욱 조심스럽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상담자가 상담자 윤리에 따라 자신에게 명시적인 차별 표현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일부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담자가 표현을 하진 않더라도 실제로는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특히, 상담 초기와 같이 상담자와 내담자간 신뢰 형성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더라도 그에 대해 직접 상담자에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힐 때, 내담자가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서도 탐색하고, 커밍아웃 이

후에 느낄 수 있는 불안감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 커밍아웃 전후의 상담자의 태도가 변함없이 중립적이고 수용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동성애자 내담자가 높게 평가하는 상담자의 상담역량 중 하나로(박수영 외, 2018), 이는 동성애자 내담자들이 상담 장면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알릴 때 상담자가 편견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준다. 따라서 상담자는 동성애자 내담자가 커밍아웃 전, 커밍아웃, 커밍아웃 후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자의 다수는 커밍아웃 이후에 상담자에게 차별을 받았다고 인식했다.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자신이 동성에게 애정을 느꼈던 경험이나 자신의 연애관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동성애자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원인을 찾으려고 시도 하는 것, 참여자가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가 참여자의 성적 지향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다양한 차별을 경험했다. 이처럼 동성애자는 상담 장면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한다(Bryan, 2018; Pachankis, & Goldfried, 2004; Shelton, & Delgado-Romero, 2011).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이 사귀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면 다른 주제로 화제를 전환했던 경험을 상담자가 자신의 동성애자로서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다.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동성애 성적 지향성을 부정하거나 바꾸려는 명시적인 의도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동성애자 내담자에게 차별로 인식될 수 있는 질문이나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얼굴 표정이나 신체 자세 등의 비언어적 메시지나 성적

지향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것도 미묘한 형태의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공춘옥 외, 2018). 따라서 상담자는 꾸준한 자기 성찰을 통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편견이나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자의 주 호소 문제가 동성애 성적 지향과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주 호소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상담에서의 낮은 성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권경인, 한영주, 김창대, 유성경, 2011) 상담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호소문제를 다루기 위한 배경설명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상담자에게 알릴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지만, 상담자가 성적 지향을 자신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상담의 주요주제로 두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차별로 인식했다. 한편, 참여자는 자신이 상담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과정이 진행되었을 때 상담자와 상담관계에 대해서 편안함을 경험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담 과정 및 효과연구의 결과에서도 밝혀진 바이다(김영근, 2013). 따라서 상담자는 동성애자 내담자와의 상담장면에서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주 호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내담자의 성적 지향성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거나 관심을 갖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가 상담자에게 받았다고 인식한 차별 중, 상담자가 자신이 이전에 만났던 성소수자 내담자와의 상담경험을 토대로 동성애자 집단이나,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는

자신이 이성애자라면 듣지 않았을 질문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상담자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자신을 이해하거나 판단한다고 느낄 때 상담자가 동성애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했다. 한 참여자는 상담자가 ‘동성애자인데 주변에 오래된 커플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고 상담자의 그 질문을 미묘하게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역으로 같은 질문을 이성애자인 내담자에게 ‘이성애자인데 주변에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커플이 있는지’를 묻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질문이 참여자에게 왜 불편감을 유발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소수자, 그리고 동성애자의 삶은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을 받는다는 공통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만, 성적 지향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한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과의 관계, 직업, 소속 집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각자의 삶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성애자가 모두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듯이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각 개인의 삶이 다른 형태를 보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전제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집단을 일반화한 고정관념에 기초해서 질문을 던진 상담자의 질문은 참여자에게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 이처럼 상담자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단편적이거나 제한적인 인식은 상담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내담자에게는 부적절하게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자신이 동성애자나 성소수자에 대해 자신이 지닌 편견이나 오해는 없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비온뒤무지개재단, 2019;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셋째, 참여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문

제를 다루는 상담자의 개입과 전문성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공감이나 반영과 같은 기본적인 상담 기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자의 개입도 효과적이라고 인식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문제를 털어놓았을 때 깊이 이해받고, 수용 받는다고 느꼈다. 그와 동시에 상담자가 참여자의 자기 이해를 도왔던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예를 들면 참여자가 지속적인 우울감을 호소할 때 상담자가 질문을 통해 참여자가 그 감정의 배경이나 원인으로 거슬러 갈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결과 참여자는 자신이 우울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상담 초기에는 상담자가 지지적인 반응을 중심으로 하고 내담자와의 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이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등 내담자의 준비도에 맞춰서 상담자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참여자가 인식하는 상담자의 전문성의 하나로 언급되었다. 이를 통해, 특정한 이론에서 도출되는 상담자의 기법이 아닌 다양한 이론 전반에서 공통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기법, 예를 들면 정서에 초점 두기, 타당화, 내담자의 말을 잘 수용하기, 버텨주기, ‘지금-여기(Here and Now)’ 활용하기 등이 동성애자 내담자와의 상담 장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다(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몇몇 참여자는 상담자와의 좋은 관계를 맺은 경험을 통해 상담실 밖의 관계에서도 타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 장면 안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와 맺은 새로운 관계 경험을 기반으로 상담 장면 밖의 다른 관계에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이동식, 2008), 상담의 효과로 보고되었던 선

행 연구의 결과들과 유사한 내용이다.

한편 참여자는 상담 과정에서 혼란스럽거나 불편했던 경험에 대해서도 보고했는데, 특히 상담자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아서 수용 받거나 지지받는 느낌을 받지 못하거나, 상담자가 참여자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아 상담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 때, 상담을 계속 지속하는 게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동성애자 내담자뿐 아니라 일반적인 내담자들이 상담 장면에서 갖는 어려움으로, 동성애자 내담자와의 상담에서도 그와 관련된 지식이나 적절한 태도 못지않게 상담자의 일반적인 상담역량 및 전문성이 긍정적인 상담 경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성애자 내담자와의 상담에서도 상담자가 타당화, 수용, 구체화 등의 상담 기법을 잘 이용하는 것, 내담자의 현상학적 장으로 들어가 함께하고 내담자의 자원과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 내담자와의 신뢰로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등의 기본적인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태도, 기법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참여자들은 상담이 필요할 때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힐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했다. 또한, 상담자가 참여자들이 동성애자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유한 경험에 대해 공감하거나 이해하는 것, 그리고 동성애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대는 참여자가 상담자는 전문가로서 단순히 성소수자에 대해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즉 성소수자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넘어 동성애자의 삶과 경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

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동성애자로서 겪는 경험을 상담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상담자가 이해하기를 기대한 만큼,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참여자들은 크게 실망하거나 좌절감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상담에서 설명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것에 대해 답답해했고 그런 설명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담자에게 화가 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처럼, 동성애자 내담자는 성적 지향의 발달 과정이나 커밍아웃 과정 등 자신의 동성애 정체성과 관련된 상담자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받지 못한 경험으로 지각한다(우사라, 유성경, 2017; Burckell, & Goldfried, 2006; Spengler et al, 2016). 이렇게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가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상담자의 지식이 부족함을 경험하면(Kelly, 2015), 그 이후에는 상담자의 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소수자에 특화된 지식을 지닌 상담자를 선호하고 적극적으로 찾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urckell, & Goldfried, 2006). 한편, 상담자 역시 상담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충분히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확신하기 어려워할 수 있다(이민정, 2015). 상담자가 동성애자 내담자와 상담할 때 갖추어야 할 태도, 지식 및 기술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편견이 상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따라서 성소수자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 상담자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이민정, 2015), 국내에서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박수영 외, 2018).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다문화주의 상담 과목을 석사과정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CACREP, 2016). 또한 상담실습 및 수퍼비전을 통해, 상담자가 자신과 다른 정체성, 문화적 배경을 지닌 내담자를 상담할 때 어떤 개입이나 어떤 접근법을 써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다룬다. 미국 심리학회 및 미국 상담학회는 공식적으로 성소수자 내담자와의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배포하여 상담자가 효과적이고도 윤리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성소수자 상담과 관련된 훈련이 상담자 교육과정이나 학회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다. 국내 상담자들에게도 이러한 교육, 훈련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상담자들의 성소수자 상담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동성애자의 상담경험을 Van Kaam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참여자들의 상담경험을 그들의 언어를 따라가며 기술하였다. 동성애자로서 상담을 받을 때 그 경험은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상담자가 동성애자 내담자와의 상담 장면에서 보이는 태도나 개입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담자가 자신의 인식과 태도를 점검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자 내담자가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상담 장면에서 갖게 되는 어

려움을 탐색하고 그런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상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담자의 지지적 태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담 실제에서 상담자의 지지적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동성애자의 상담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상담경험이 있는 남성 동성애자가 모집되지 않아 최초 연구 의도와는 다르게 여성 동성애자의 상담 경험만을 탐색하는 데 그쳤다. 성소수자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적은 수로 표집 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공춘옥 외, 2018; 박수영 외, 2018), 동성애자 집단 내에서 성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의 성비가 더 동일하게 구성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나 노인처럼 연령대에 따라라도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성적 지향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하위 집단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병철 (2011).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2), 381-417.
- 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비교. *신경정신학회지*, 41(5), 930-941.
- 공춘옥, 정윤경, 박수영 (2018). 성소수자(LGB)

- 의 상담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질적 탐구*, 4, 197-232.
- 국가통계포털(2019). *고령인구비율 ( 시도/시/군 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vw\\_cd=MT\\_GTITLE01&list\\_id=1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vw_cd=MT_GTITLE01&list_id=1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에서 2019.11.11 자료 얻음.
- 국가통계포털(2019). *국적·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6&vw\\_cd=MT\\_ZTITLE&list\\_id=A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6&vw_cd=MT_ZTITLE&list_id=A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19.11.11 자료 얻음.
- 권경인, 한영주, 김창대, 유성경 (2011). 상담성과가 낮은 내담자들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상담학연구*, 12(6), 1977-2005.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대한간호학회지*, 29(6), 1208-1220.
- 김영근 (2013). 치료적 요인으로서의 상담자 요인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03-226.
- 김은경, 권정혜 (2004).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69-981.
- 김진이 (2017). 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4), 605-634.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일반: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 김태호 (2009). 상담의 윤리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적 접근. *다문화교육연구*, 2, 54-76.
- 김형지, 신정훈, 연규진, 김향숙 (2015).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대학생 남성의 사회불안 경험과 사회적 지지 특성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4), 811-841.
- 류성진 (2013). 동성애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결정과 시사점. *공법학 연구*, 14(4), 87-114.
- 박수영, 공춘옥, 정윤경 (2018).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내담자의 상담 참여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상담학연구*, 19(3), 367-383.
- 박승민 (2012).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경향 분석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953-977.
- 박정은 (2013).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불편감이 상담자 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동성애 내담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비온뒤무지개재단 (2019). *LGBQQIA 내담자들을 위한 ALGBTIC 상담역량*. [http://rainbowfoundation.co.kr/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4379&sid=311250fb7784ac2dbf452ba6144ecfb8&module\\_srl=1639](http://rainbowfoundation.co.kr/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4379&sid=311250fb7784ac2dbf452ba6144ecfb8&module_srl=1639)에서 2019.11.27 자료 얻음.
- 서영석, 이정립, 강재희, 차주환 (2007). 상담자의 동성애혐오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13-237.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범정책연구회 (2016).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http://sogilaw.org/69>에서 2019.11.11 자료 얻음.
- 신승배 (2013). 한국 동성애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 구, 33(1), 380-416.
- 양희선 (2017). 상담자의 성소수자 상담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사라 (2015). 상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동성애자 상담에 대한 유능감에 따른 상담자의 반응 및 임상적 판단.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사라, 유성경 (2017). 상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동성애자 상담 유능감에 따른 임상적 판단 및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311-334.
- 윤가현 (1997). 동성애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윤아영 (2013). 국내 여성 동성애자의 장소 형성과 문화 실태. 여성연구논총, 13, 69-107.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연구. 서울: 한길사.
- 이동식 (2008). 도정신치료 입문. 서울: 한강수.
- 이민정 (2015). 한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기독교 상담사의 인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윤, 서영석 (2017). 상담 과정에서 의미 있었던 내담자의 눈물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553-576.
- 이진오 (2012). 실존현상학과 상담치료 그 이론과 실제. 인문학연구, 21, 83-113.
-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한국 성소수자 건강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6, 43-76.
- 이호림, 이혜민, 박주영, 최보경, 김승섭 (2017). 한국 동성애자·양성애자의 건강불평등: 레인보우 커넥션프로젝트. 한국역학회, 39, 1-11.
-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한국 LBG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 <https://chingusai.net/xe/library/416855>에서 2019.11.11 자료 얻음.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practice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The American Psychologist*, 67(1), 10-42.
- Bidell, M. P. (2013). Addressing disparities: The impact of a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graduate counselling course.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Linking research with practice*, 13(4), 300-307.
- Bieschke, K. J., Paul, P. L., & Blasko, K. A. (2007). *Handbook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li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yan, S. E. (2018). Types of LGBT Microaggressions in Counselor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12(2), 119-135.
- Burckell, L. A., & Goldfried, M. R. (2006). Therapist qualities preferred by sexual-minority individual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3(1), 32-49.
-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2016). CACREP Standards 2016. <http://www.cacrep.org/for-programs/2016-cacrep-standards>에서 2019.11.11 자료 얻음.
- Creswell, J. W., & Poth, C. N. (201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 Davison, G. C. (2005). Issues and nonissues in the gay-affirmative treatment of patients who are gay, lesbian, or bisexual. *Clinical Psychology*:

- Science and Practice*, 12(1), 25-28.
- Dean, L., Meyer, I. H., Robinson, K., Sell, R. L., Sember, R., Silenzio, V. M., & Dunn, P. (2000).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health: Findings and concerns. *Journal of the Gay and Lesbian Medical Association*, 4(3), 102-151.
- Dukes, S. (1984).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in the human science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3(3), 197-203.
- Israel, T., & Hackett, G. (2004). Counselor education on lesbian, gay, and bisexual issues: Comparing information and attitude explor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3(3), 179-191.
- Kelley, F. A. (2015). The therapy relationship with lesbian and gay clients. *Psychotherapy*, 52(1), 113-118.
- Meyer, I. H. (201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1(S), 3-26.
- Mohr, J., & Fassinger, R. (2000). Measuring dimensions of lesbian and gay male experie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3(2), 66-66.
- Murphy, J. A., Rawlings, E. I., & Howe, S. R. (2002). A survey of clinical psychologists on treating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3(2), 183-189.
- Pachankis, J. E., & Goldfried, M. R. (2014). Clinical issues in working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1(3), 227-246.
- Plöderl, M., & Tremblay, P. (2015). Mental health of sexual minoritie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27(5), 367-385.
- Polkinghorn, D. E. (1989).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 in psychology*. Springer, Boston, MA.
- Russell, G. M., & Bohan, J. S. (2007). Liberating psychotherapy: Liberation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with LGBT clients. *Journal of Gay & Lesbian Psychotherapy*, 11(3-4), 59-75
- Rutter, P. A., Estrada, D., Ferguson, L. K., & Diggs, G. A. (2008). Sexual orientation and counselor competency: The impact of training on enhancing awareness, knowledge and skills.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2(2), 109-125.
- Shelton, K., & Delgado-Romero, E. A. (2011).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The experience of lesbian, gay, bisexual, and queer clients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210-221.
- Spengler, E. S., Miller, D. J., & Spengler, P. M. (2016). Microaggressions: Clinical errors with sexual minority clients. *Psychotherapy*, 53(3), 360-366.
- Whitman, J. S., & Bidell, M. P. (2014). Affirmative lesbian, gay, and bisexual counselor education and religious beliefs: How do we bridge the gap?.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2(2), 162-169.
- 원고접수일 : 2019. 05. 27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7. 16  
게재결정일 : 2019. 08. 09



##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unseling Experiences of Homosexual Clients: Focusing on Lesbian Clients

**Jeongeun Park**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Mi Namkoong**

Sogang University

**Seojin Chung<sup>†</sup>**

Army Headquarters

This study explored the counseling experiences of lesbian clients. Un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individuals who identify as lesbians. Using Van Kaam'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approach, 4 categories, 11 themes, and 25 sub-themes were identified. The four categories were counselors' bias and prejudice toward lesbian and gay individuals, coming out to counselors, the counseling process, and expectations of counselors. The participants perceived their sexual orientation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ir identities and reported that coming out to a counselor was a requisite component of the counseling process. Participants indicated that they had specific expectations of counselors when seeking counseling services. Some common expectations included a counselor's affirmative attitude toward sexual minority individuals, and an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the individuals who are part of a sexual minority. Based on the findings, recommendations to help counselors provide effective services to lesbian and gay clients are made, including counselors' attitude and counseling competencies for lesbian and gay clients.

*Key words* : Lesbian, Counseling experience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approach